함께하려는 마음, 인연을 심다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㉗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2025)

불교 용어 중 '인연(因緣)'만큼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 있을까?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라는 뜻풀이와 함께 사전에 올라 있는데, 여기에 운명의 '붉은 실'까지 덧붙어 붉은색 실이 두 남녀의 인연을 이어 준다는 이야기가 꽤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등장한다.

드라마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도 인연을 잇는 붉은 실을 소재로 한 드라마다. 왕을 대신해 대리청정을 하고 있는 세자 이강(배우 강태오)은 "경들 뜻대로 하십시오. 동궁전 기둥만 안 뽑아 가면 상관없습니다"라는 말을 무기로 정사는 신하들에게 맡겨 둔 채 상의원 안에 개인 옷방을 화려하게 꾸며 놓고 사치와 미모 가꾸기에 몰두하는 망나니 왕세자다.

세자 이강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좌상(배우 진구) 때문이다. 선왕이 세상을 떠난 후, 좌상의 악행과 계략을 통해 왕위에 오른 이강의 아버지는 정신 이상으로 몰려 뒷방에 감금되다시피 있고, 세자는 그저 꼭두각시일 뿐인 상황. 더구나 5년 전 세자의 모후인 중전을 시해한 혐의로 세자빈 강연월(배우 김세정)이 사약을 받는 일이 발생해, 세자를 더욱 세상과 등지게 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짐작하듯, 이는 세상을 속이기 위한 위장일 뿐이다. 이강은 연월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음에 이르게 한 좌상에게 단 하루도 복수의 다짐을 하지 않은 날이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저자에 나선 이강 앞에 연월을 꼭 닮은 박달이(배우 김세정)라는 등짐장수가 나타난다.

보령의 대행수인 박홍난(배우 박아인) 밑에서 등짐장사를 하는 달이는 5년 전 사고를 당해 그전의 기억을 몽땅 잃어버렸다. 원래 한양 대갓집의 노비였는데 다섯 살 때 부모를 따라 도망치는 길에 부모는 죽고 겨우겨우 살아남아 부모의 지인이 거둬 줬다는 것이 달이가 전해 들은 자신의 지난 인생이다. 그때 달이를 거둬 준 이가 바로 홍난이었고 홍난은 자식이 없는 오빠 부부에게 달이를 입양하게 했다. 그렇게 달이는 돈 많이 벌어 만민이 평등하다는 서국에 가는 꿈을 꾸며 수완 있는 등짐장수로 씩씩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었다.

전국을 누비는 달이에게 고모 홍난이 경계시키는 것은 단 한 가지, 추노꾼들이 아직도 달이를 쫓고 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한양에는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열녀문을 위해 시어머니에게서 자결을 종용받는 허 영감 딸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양에 발을 들인 달이는, 자신이 죽은 부인과 똑같이 생겼다며 아련한 눈길로 쳐다보는 이강을 만난다.

사실 달이는 세자빈을 닮은 것이 아니라 진짜 세자빈 연월이었다. 사약이 내려질 것이니 피하라는 홍난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자결을 택한 연월이 얼음물에 몸을 던지자 뒤따라온 홍난이 겨우 구해 냈다. 정신을 차린 연월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고, 홍난은 사약을 피해 살아남은 대역 죄인이 된 연월을 달이로 위장시켜 5년을 함께 살았다.

중국 설화 빌려 이강 · 달이의 사랑 전해
피가 물에 섞일 때 영혼 바뀌는 설정도 간절함이 일으킨 기적 보여 주는 드라마
"인연은 기적들이 쌓여 만들어져" 정의
사람 간 관계,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어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메인 포스터.
사진 출처=MBC 공식 홈페이지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는 중국의 설화를 빌려 이강과 달이의 애절한 사랑을 그린 드라마로, 두 사람의 영혼이 바뀌는 설정을 더해 그 사랑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사진은 드라마의 메인 포스터. **사진 출처=MBC 공식 홈페이지**

드라마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의 첫 장면은 얼음 위를 걸어가는 소년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이때, 노인의 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영호책이라는 이가 얼음 위에서 얼음 아래 사람과 이야기하는 꿈을 꾸었다. 점쟁이 색담이 해몽하기를, 얼음 위는 양이고 얼음 밑은 음이니 음양, 즉 남녀에 관한 일입니다. 당신이 중매를 서 얼음이 녹는 시기에 식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국의 사서 〈진서(晉書)〉 '예술전(藝術傳)'에 실린 '빙하인(氷下人)' 이야기라고 출전을 밝힌다. 실제로 이 이야기는 7세기에 당에서 나온 〈진서〉 95권에 '색담(索紞)'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로 실려 있다. 색담의 해몽대로 영호책은 태수에게 자기 아들과 장씨의 딸을 중매 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얼음이 풀릴 무렵에 이 결혼을 성사시켰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얼음 아래 사람, 즉 빙하인을 남녀의 인연을 이어 주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이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이 이야기를 전하는 노인을 월하노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월하노인은 남녀의 인연을 이어 주는 또 다른 존재로 널리 알려져 있다. 800년대 중국의 이복언이라는 사람이 지은 〈속유괴록(續幽怪錄)〉에 '정혼점(定婚店, 혼인을 결정하는 객점)'이라는 제목으로 월하노인의 이야기가 전한다.

위고라는 사람이 어느 여관에 묵었는데 달빛 아래에서 큼직한 책을 뒤적이는 노인이 있었다. 노인의 옆에는 또 큰 포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속에는 붉은색 실이 가득했다. 노인은 그 책이 세상 사람들의 혼인의 인연을 기록한 책이라고 설명하고는 포대 속의 붉은 실로 두 사람을 묶기만 하면 부부가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고에게 길을 지나가는 한 아이를 가리키며 장래에 위고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위고는 노인이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하고 아이와 인연이 닿지 않게 했으나 결국 14년 후에 만난 여인이 그때 그 아이임을 알게 됐다. 그래서 월하노인을 기념하려고 그 여관을 '정혼점'이라고 불렀다는 내용이다.

드라마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의 제1회와 제2회의 부제가 이미 '홍연(紅緣)'인 것처럼 드라마는 빙하인과 월하노인과 붉은 실이라는 중국의 오래된 설화를 빌려서 이강과 달이의 애절한 사랑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둘의 영혼이 바뀌는 설정을 추가해 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2회에서 월하노인은 물에 빠진 연월을 살려 주며 홍난에게 주의 사항을 일러 준다. 연월의 홍연을 봉인했기 때문에 지난 기억이 사라졌다면서 잃어버린 인연을 찾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한다. 그날 이후, 봉인의 표시로 연월의 손목에는 붉은 상처가 생겼다. 그런데 이강과 영혼이 바뀌는 순간 이 붉은 상처에서 빛이 나며 상처가 사라져 버린다. 마지막 회에 나오는 월하노인의 설명에 따르면, 제 짝을 간절히 그러워하던 홍연이 제발 서로를 알아보라며 외친 아우성이자 원망이었다는 것이다.

이강과 달이의 영혼이 바뀌는 조건은 둘의 피가 물속에 함께 섞일 때다. 연월은 목숨을 버리려고 물에 뛰어들었고 이강은 얼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한 연월의 시신을 본 충격으로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결국 둘에게 물은 죽음과 동의어인 셈이다. 피 역시 죽음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둘에게 죽음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이강과 달이 영혼이 바뀐다는 뜻이다.

이러한 설정이 가장 극적으로 사용된 장면은 마지막 회다. 좌상의 공격으로 달이의 목숨이 위태롭자 이강은 일부러 자신의 손에 상처를 내고 달이의 몸으로 들어간다.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다. 결국 숨을 거두는 달이의 몸의 이강의 영혼, 이강의 몸에 갇힌 달이는 똑같은 방법으로 손에 상처를 내고 다시 영혼을 바꾸려고 하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사랑하는 연인과 자신의 몸을 잃은 달이가 절규하며 눈물을 흘리는 순간, 다 죽은 인연화가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이강과 달이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달이 대신 목숨을 바친 이강에게, 둘의 인연을 이어 주기도 했고 반대로 인연을 봉인하기도 했던 월하노인이 들려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죽음을 앞둔 순간,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다는 이강의 간절한 마음과 연월의 간절한 마음이 죽어 가는 인연화를 살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홍연의 봉인을 푼 것이나 몸을 바꾸는 기적 역시 이강과 연월의 연심이 한 일이라고 말한다.

또한 드라마는 이강의 입으로도 "모든 기적들이 쌓아서 만들어진 게 인연"이라고 '인연'에 대해 정의한다. 결국 참다운 인연이란 하늘이 맺어 준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연으로 아름답게 이어 가려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불교에서 인연은 남녀 사이의 연분이 아니라 원인과 조건이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무수히 많은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가르침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나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그 누가 끊어지지 않는 인연을 만들어 주겠는가. 그러니 불교에는 월하노인이나 빙하인이나 붉은 실이 필요하지 않다.

드라마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는 영혼이 바뀌는 설정을 통해 두 주인공이 서로의 처지와 마음을 공감하게 하고, 그 조건을 물과 피로 제시함으로써 아무런 관계가 없던 남녀가 부부가 되어 혈연보다 깊은 관계를 만드는 일을 상징하고 있다. 서로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편이 돼 주어야 하는 존재가 부부이고 가족이 아니던가. 마지막으로 중국의 붉은 실이 아닌 우리의 청실홍실로 남녀의 인연을 표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살짝 남겨 본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